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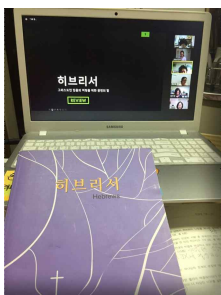


열여덟번째 이야기

말씀으로 ‘Contact’

[2020 ONLINE SEMINAR 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일상 속에 어느새 자리 잡은 ‘Untact(비대면)’ 문화! 회사는 물론 교회나 선교지에서도 화상회의 매체는 하나의 소통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그 통로를 잘 활용하여 40여 명이 함께한 ‘히브리서’ 온라인 세미나 속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두분의 후기를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후기1> 어느 날 온라인 토요일도 모임 후 한숙영 권사님의 히브리서 세미나 광고 중 바라보고 기대했던 조문상 선교사님께서 세미나 인도자라는 광고를 듣자마자 가볍고 신나는 마음으로 신청! 그런데!! 유튜브 강의 2시간, 목요 세미나도

무려 2시간! 과제는 쉬는 한 날을 할애해야 하는 기쁨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세미나 시간마다 기쁨과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즐거움과 감동이 넘쳤고, 2시간의 온라인 모임은 1시간보다 짧게 느껴지는 시간 여행이었습니다.

첫인사를 나누는데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등 막강파워 일꾼들 속에 주눅 들었지만 조원들의 진솔한 나눔과 감

동으로 복음에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제가 연구 과제를 묵상해서 작성하려니 참 힘들었습니다. 생각 없이 사는 저를 위해 생각하고 묵상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연구 과제를 작성하면서 나의 신앙생활과 삶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는 ‘연구과제 5’는 재림 약속에 대한 긴박성과 경고를 잊고 살았음을 회개케 하셨고 나의 삶의 목적과 태도를 점검, 종말론적 구원을 소망하며 인내의 삶을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는 순교자 Jim Eliot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영원한 안식과 기업을 위해 인내의 경주를 하며 공동체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기도하였습니다.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유튜브 영상 강의와 온라인 세미나로 섬겨주시고 글씨도 알아볼 수 있게 잘 쓰시는 조문상 선교사님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막강 파워의 헌신된 주님의 일꾼들과 함께 히브리서 세미나를 듣도록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온라인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지친 저의 영혼에 기쁨과 소망을 주었고 이 시기를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며 승리하도록 주님이 준비해 주신 상이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12:2).”

주님!!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글쓴이: 박은진 집사]



온누리교회 서빙고 사랑부를 섬기고 있으며, 3년 전 말씀을 향한 목마름과 사랑부 김종영 목사의 BEE 세미나 광고에 해야되나보다 하고 신청, 한 과목 마칠 때마다 다음 번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권유로 자의 반 타의 반 지금도 세미나를 통해 말씀을 배우는 중이다.

<후기2> 한마디로 참~ 바람직한 세미나였다. 숙련되고 준비된 인도자님, 평상시보다 좀 많은 인원임에도 전혀 부딪치지 않았던 점은 이미 훈련된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코로나19가 아니면 어림도 없었을 먼 대륙 선교사들이 대거 출연하는 첫 국제 비대면 BEE 세미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빼고도 모두에게 은혜가 넘쳤던 세미나였다. 특히 7개월 넘도록 집에 꼭 박혀 왕래가 없던 시기에 반가운 얼굴들과 2개월 넘게 함께했다는 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옳은 이해를 위해 아프리카 시골에서 밖으로는 코로나19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 나가지도 못한 채 TV도 라디오도 없이 혼자서 6개월 정도를 지내보는 단기선교를 권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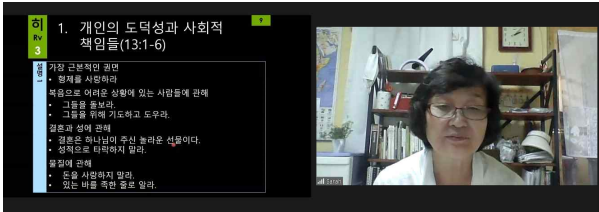


세미나에 참석한 해외 선교사님들

솔직히 처음에는 히브리서의 여러 경고들이 ‘다시는’, ‘절대로’라는 말과 함께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마음과 거저 주신 은혜라고 하면서도 섬기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공부해 나아가면서 계속 질문들이 이어졌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롬4:5)라고 선언하셨던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도록 내린 결정 또한 나 같은 사람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아들을 죄인들에게 내주지 못했을 텐데... 아들 예수님은 또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는가? 나는 부모에게 반항했던 적이 많았는데... 우리가 얻게 된 은혜가 이런건만, ‘하물며 그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히10:29)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온 맘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게 해 주세요!!

언제부터인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고개를 가우뚱했었는데 이번 세미나는 저를 영적으로 한 계단 올려놓은 세미나였다고 단언한다. ‘나’ 중심적, 현세적, 좁은 시야의 삶에서 탈피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과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믿음의 경주를 이웃과 함께 뛰면서 계속 성장하고자 하나님의 크고 고귀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경외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해 본다.



세미나에 참석 중인 윤경환 선교사

[글쓴이: 윤경환 선교사]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 신학공부를 준비하던 중, 2007년 여름특강 "How to study the Bible" (성경연구방법, BEE) 세미나광고를 보고 '평생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었어, 꼭 들어야겠네!'하며 BEE 시작, 2014년 선교사 파송, 2018년부터 케냐와 우간다에서 목회자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정리: 김옥숙, 정주영 편집: 최선]

BEE 소식

- 1. 2020년 하나님의 “준비하라”라는 음성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준비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암4:12)
- 2. 9월 가을학기 온비아 세미나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멋지고 알차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등록하세요! 말씀으로 열매 맺는 가을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지  GHANA



가나의 장례 문화 -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의 흥겨운 댄스가 인상적이다. 가나는 이렇듯 본인이 죽기 전에 미리 관 모양을 정하는 특별한 문화가 있다. 신발, 로켓, 비행기, 코끼리, 물고기, 코카콜라 병 등 다양하다.